

박영숙 평민당 총재권한대행과 민중신학자 안병무박사 부부 스토리 ‘아빠’는 내 일생 최고의 스승이예요

YWCA 활동부터 여성단체연합회를 이끌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한 단계 질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앞장섰던 박영숙 현 평민당 총재권한대행,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며 ‘명동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해직과 복직을 네 차례나 거듭하며 재야민주화운동의 선봉에서 싸워온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인 민중신학자 안병무교수, 앓고 행동을 가정생활에서부터 실천해온 ‘민주부부’가 털어 놓는 비하인드 스토리.

글/이희성 (리포라이터) 사진/송의호 기지



감옥갔다 오니까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다

‘김대중 선생이 조직한 인사(人事) 중에서 최근 가장 잘한 인사는 바로 박영숙 총재권한대행을 당에 영입한 게 이시다’

이는 요즘 박영숙 총재에 대해, 평민당 내의 기존 의원들이나 재야 입당 인사들 모두가 인정하는 평판이다. ‘한국의 대치 여사’라는 평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총재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나에게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내 평생 가장 스승다운 스승이었던 ‘아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입당한지 이제 5개월뿐이 안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동안 저는 아빠로 인해 눈을 뜬 후 비로소 소외받는 이들에 대해 내 뼈를 쥐는 아픔을 알게 됐고 그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그 연장선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아빠’란 물론 민중신학자인 남편 안병무박사를 말한다. 안박사는 1970년부터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

난 ’76년 3월 1일, 이른바 ‘명동성당사건’으로 불리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고 해직과 복직을 네 차례나 반복하는 등 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언제나 재야 반체제운동의 전면에 서서 싸워온 인물이다.

그러나 어디 ‘스승’ 덕분만이기가 하겠는가. 박총재를 처음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는 그 소박한 얼굴과는 달리 목소리가 두둑고 이 나라 지도급 여성들한테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부다운 무게가 있다. 이는 아마 일찍이 홀로 되어 6형제를 키워온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인 듯하다.

박총재는 1932년 평양에서 3남3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녀가 9살때 요절했는데 이때부터 어머니는 제과회사를 경영하는 등 이장부로서 여섯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던 것이다.

박총재의 가족이 월남한 것은 1947년. 해방후, 시국이 수상해지자 어머니는 가족들을 몇차례에 나눠 모두 38선을 넘게 했다.

월남후 이들 가족이 자리잡은 곳은 전남 광주였다. 박총재의 하나뿐이 없는 숙부가 당시 그곳에 주둔한 부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정의여고를 다니다가 월남한 박총재는 월

남 이듬해 전남여고 5학년에 편입했다.

전남여고를 졸업했을 때는 또 6.25가 터져 그녀는 가족과 함께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공부한 때와 장소가 없는 법. 전시 중이었기는 하지만 그녀는 부산에 피난와 있던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했고 그것은 오늘 의 박총재에 이르는 진입로이기도 했다.

전쟁은 박총재가 대학 3학년 때 끝났다. 귀경하는 학교를 따라 서울로 올라온 그는 기숙사생활을 하며 YWCA 활동에 참여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므로 Y활동은 곧 사회봉사활동에 집중됐었으나 당시는 Y임원들이 대개 학생회 간부를 겸하고 있어서 박총재

의 역책기질은 금방 눈에 띄었다. 일에 관한 한은 '황소'라는 별명을 들으며 대학시절부터 이미 그는 Y의 일꾼으로 정평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YWCA에 들어간 박총재는 선배들의 기대대로 실로 일밖에 모르는 맹렬 Y맨이었다.

박총재와 안박사가 처음으로 상면한 것은 안박사가 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10년간의 신학공부를 마치고 귀국한지 얼마후인 때였다. 안박사는 세미나 장소를 알아보러 YWCA에 왔었는데, 사실은 이때 이미 안박사는 박총무에 대해 익히 들은 바가 있었다고 한다. 독일에 있을 때부터 몇몇 친구들이 안박사에게 'Y에 있는 박모 여인이

있는데 아마 당선하고 잘 어울릴 듯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자주 얘기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22년생으로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당시까지 안박사는 확고한 독신주의자였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신교계에서 사회구원을 위한 기독교운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준 목사를 스승으로 만나 20대 초반부터 기독교에 입문했는데 신앙 초기부터 철저히 본래의 예수처럼 살겠다는 신념이었으므로 그러한 생활과 가정은 결코 병립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예를 들어 그는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총각시절 내내 단발머리와 단발선만 신었고 지금은 일체 안했으며 자신의 방도 못쓰는 신문지로 벽지를 바르고 책상은 사과재짜이었다.

뿐만 아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중이던 20대에 서울 남산 밑에 일신교회를 설립했고 전쟁후에는 오늘날의 향원교회를 창설했으며 작년에도 지난 72년부터 운영해오던 한국신학연구소 안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의 한백교회를 설립하는 등 기회만 닿으면 개척교회를 세우며

어느 목사보다도 본래의 예수 모습에 충실한 목회자이고자 했다.

이러한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첫 상변에서 박종재의 주장대로 '여자가 하안수트를 입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할 만큼 마음이 빼앗겼었다' 해도 대이트를 신청하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은 그로부터 일어난 후에 일어난다. 1967년 여름, Y예선 일주일간의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박종무가 대회기간 중의 상서강사 중에 안병무씨를 초빙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종무는 그때 안교수에게 아침 7시 강의를 맡아달

“지난6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날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겠다고 하니까
금년중에
머느리를 보게 해 달라는 겁니다.
평생 독신으로 있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 약속을 드렸으니
이젠 결혼을 안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했는데, 매일밤 두세시까지 공부하는 안교수에게는 아침 7시가 한밤중인데도 선뜻 응낙한 것부터가 예상치 않은 일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부부의 주장이 각자 다르다는 점이다. 박종재가 “아침 일찍 해야하는 강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절하고마는 양반이나 ‘포실러고’ 말았다”고 말하자 안박사는 “이 권구는 그때 매일 새옷으로 갈아입고 아침마다 문앞에 나와 날 기다리더라”고 공박. 이에 대해 박종재는 “한여름인데 종일 땀이 났을 옷을 갈아입는 건 당연하고 또 강의를 들을 사람들



수유리에 있는 자택에 오찬전에 온가족이 모였다. 위아들인 재권군은 서울대 2학년의 재학 중이다.

이 모두 모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행 책임자인 나로서는 강사가 빨리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해명하는 식이다.

좀 무례한 말인지는 모르나 나이는 분들도 ‘사랑싸움’은 재미있는가보다. 어쨌든 그때의 오해 아닌 오해가 시작이되어 대회가 끝난후 다행히(?) ‘데이트’를 가질 발미가 생겼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안교수의 강의 중 구원론에 관해 자기의 신념과 다른 해석을 한데 대해 몇가지 해명을 요구했으므로 안교수는 이를 테입에 담아 넘겨주기로 했던 것.

안교수는 테입도 건네줄걸 저녁이나 먹자고 제의했고 박종무는 쾌히 승낙, YWCA 앞 장미다방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했는데, 식사후 안교수는 다시 저녁 사준값 내라고 부주겠다고 한다. 이에 박종무가 영화구경을 제의했으나 표를 못구해 극장을 돌다 전 국제극장에서 간신히 구한 표가 ‘무건재 우는 밤’이었다. 관 두명을 열고 시체들이



되었다는 승낙의 표현을 한 셈이 되었다.

지계꾼도 저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두 사람은 안교수 어머니의 소원대로 67년을 넘기지 않고 12월 19일 결혼했다. 날씨가 하도 추워 '별난 사람들 혼례라 날씨도 고약하다'는 하객들의 편견을 들으며 김재준 목사 주례로 Y에서 식을 올렸다.

안박사는 당시 결혼 상대방으로 박총재를 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나는 결혼후에도 내가 독신이 있을 때의 리듬을 깨지 않는 여자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세계가 있고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여자여야 했다. 이 친구는 그런 여자였고 또 나를 만날 때 매력있는 표정을 짓는 것이 '이 여자 나한테 반했구나' 싶어 결혼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일찍 자야하고 나는 밤늦도록 공부하는 리듬을 서로 깨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생활을 이겨준 것이 용하다."

이에 대해 박총재는 말한다.

"아빠는 내 일생 최고의 유일한 스승이다. 이분은 요즘도 몇달만 지나면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곤 하는데 그런 스타일을 포함해서 나는 아빠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분이 알고보면 뜻밖에 가정적이고 나를 아주 잘 다뤄온 것 같다."

그러나 신혼초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충돌도 많았다고 한다.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부딪혔다. 제주도로 갔었는데 호텔방에 들어간 후 안교수는 욕실로 들어가는 박총재에게 말했다.

"거 YWCA 여자들은 왜 그렇게 눈이 빠고 의식이 없어?"

그러자 박총재가 벌떡 화를 냈다.

"나한테는 욕해도 Y사람들 욕은 하지 마세요!"

후일에는 결국 박총재가 안박사의 이론에 굴복하고 만 셈이 되었다. 지



제주시립 박총재기념도서관 모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보며 박총무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날, 결코 자상한 것 같지 않던 이 중년의 독신주의 남자가 놀랍게도 자기의 가방을 열어주곤 했다 한다.

그로부터 얼마후 안교수는 박총무에게 밥을 식혀 주겠다고 나오라고 했다.

박총무가 나가자 안교수는 한강 박사장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곳에서 박총무는 참으로 '청혼답지 않은 청혼'을 받았다.

"지난 6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시자마자 날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겠다고 하니까 금년중에 머느리 좀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평생 독신으로 있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번 결혼을 안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애긴데 우리 결혼합시다."

는답없이 이 멋진 청혼을 듣고 박총무는 깔깔 웃으며 이렇게만 대답했다.

"안박사님 결혼관에 문제가 많네요."

그러나 그 며칠후 안교수가 다시 한강 나가자고 전화가 왔을 때 박총재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 두 개와 모래사장에 깔고앉을 것과 간단한 음식들을 싸들고 나감으로써 아내가



87년 12월 YWCA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지난 봄을사건으로 육고를 치르고 출강하던 때의 인명우박사와 그 가족들



지난 봄보신천대통령실에 오면 17가족을—윤석현총, 윤보선전대통령, 장일형박사, 이계영박사, 이희호여사, 이우철교수 등까지 모음이 보인다.

금까지 혜택받은 여성들 중심의 여성 운동은 여성들이 정계나 관계에 자리나 하나 차지하는 것으로 여권신장의 척도를 재곤 했는데 이에 대해 안박사는 사회 구조적인 여성 소외가 개선되지 않고는 여성해방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 오늘날은 이같은 생각이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이노선을 택하게 된 것을 박종재가 정치입문 전에 제1부회장으로 있던 여성단체연합회(여연)가 지난 84년 결성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딸이나 언탄을 좀 넉넉히 들여와도 남편은 시비를 걸었고 어디서 버리는 물건을 주워와도 편찬, 심지어는 잣갈도 못담게 했다고 한다. '비축'이란 가진 자들의 이기심과 허영심이라고 일축했던 것이다. 워낙 통이 큰 박종재여서 손도 커서 안박사의 눈에는 손님 접대 때마다 잔치집같이 차리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 또한 충돌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소유를 부끄러워 하라. 가진 것을 언제든 다 내놓고 빈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어느새 박종재의 의식 속에도 자리잡아, 이제는 세 끼니 꼬박꼬박 먹고 수유리의 아담한 집에 사는 것까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대처여사’로 불리는 여장부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박종철군 고문 사건,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이한열군 최루탄 사건, KBS시청료거부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때마다 박종재는 최전선에서 책임을 도맡곤 해왔는데 이같은 치열한 역시 남편에 의해 분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6년, 3.1구국선언 사건으로 남편이 20명속에 끼어 구속되자 박종재는 이른바 '3.1가족'이라 불린 구속자가족들과 함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재판날이

면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시위를 벌이면서 점차 투사가 되어갔다. 그해 말, 안박사가 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왔을 때, 아내에 대해 한 말이 있다.

“내가 감옥 갔다 나오니까 고양이와 호랑이로 변해 있더라.”

아내는 박씨니까「바깥사람」 나는 안씨니까「안사람」

지난 60년, 아들 때문에 Y를 그만두었던 박총재는 그후 70년대엔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부회장, YWCA 실행위원 등으로 인권운동대열에 섰었고 80년

이 사표를 냈고 김대중 총재까지 물러나자 재야 영입 케이스여서 당시 사표를 내지 않고 유일한 부총재로 남았었던 박부총재가 총재권한대행 및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평민당 입당시 박총재는 무척 고민했었다고 한다. 자신은 막후협상같은 것은 못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정치계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았거나와 가정적으로도 자기가 빠지면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편 안박사는 옥고를 치른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다 안박사에겐 워낙 외국순님들도 많고 그의 위치상 안박사 집은 재야 회의실이

어울 경우 본능적으로 잠못자고 기다리는 정도일 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박사는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하고 있다.

“정치계란 소외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정치계란 또 발을 들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애초의 이념은 희미해지기 쉽다. 당신이 정치인이 되는 걸 내가 승낙한 것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였다. 만일 앞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더러운 정치인의 냄새가 난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거나 이혼도 불사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박총재는

정치계란 소외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대변해야 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정치계란 또 발을 들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애초의 이념은 희미해지기 쉽다.

당신이 정치인이 되는 걸 내가 승낙한 것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였다.

만일 앞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더러운

정치인의 냄새가 난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거나 이혼도

불가할 것이다.



대 들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84년부터는 여연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회여성운동과 여성단체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오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평민당에 입당, 부총재직을 맡기 시작했다. 당시 여연이 김대중씨를 야권의 단일후보로 지지하고 나서자 평민당은 여연에 여성 부총재 한명을 추천해줄길 의뢰해왔고 이에 따라 여연 지도부에서 박부회장을 결정한 것이다. 그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실패 및 야권통합 실패 책임을 물어 5명의 기존의원 부총재들

나 갈았으므로 주부가 없으면 안되는 집이었다. 게다가 아들에겐 엄마이며 누나며 친구인 모든 것이었으므로 진짜 고심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대표로서 정치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정도 절박한 것이었다.

그러하여 5개월이 지난 오늘날 그는 애초의 걱정대로 집안일은 조금도 병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저녁 8시나마 들어올 수 있는 날은 이를 뿐, 총선을 앞두고는 지방 유세 지원에 나서기도 해야 했다. 때문에 가끔 남편은 저녁식사를 밖에서 하기도 하고 아들을 위해서는 밤늦게 안들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야와 평민당, 원내 이 3자 합의하에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정경다리 역할을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정책수립, 정책수행에 반영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

안박사는 가끔 박씨인 아내는 바깥사람이고 안씨인 자신은 안사람으로 농담을 한다. 실로 어느 부부가 이들을 치러 서로 완벽하게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부럽기만 하다. (*)